

오랫동안 용인 자연농원등 몇 군데 기업 양돈장을 전전하며 밤잠을 설쳤다.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며 일하며 실험한 방법으로 내 작품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몇 일 간 밤잠을 설쳤다.

아울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연구, 실험하여 명실상부한 전문 종돈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조그마한 힘이나마 우량 종돈을 생산하여 중소 규모의 양돈장에 보탬이 되도록 정진할 것을 지면을 통해 나의 농장 직원들과 굳게 맹세하며, 양돈업이 앞으로의 식생활 개선에 제일 앞장서는 사업임을 자부하며 이만 난필을 줄이려한다.

모든 양돈업자의 밝은 새해가 되길 기원하며...

84년의 여운을 되새기자



홍 문 표
(한국양돈연구회)

길고 깊은 불황의 회오리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가 역겨웠던 한 해가 일말의 기대도 가져다 주지 못한 채 저물어가고 있다.

불황을 예견하고 즐기찬 홍보와 수매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년여째 불황이란 존재는 기가 꺾일 줄 모르니 말이다.

다행히 하반기에 시세가 약간은 강보합세로 전환되는 듯한 기미가 있고, 통계상의 사육두수와 사료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겠으나, 종돈의 보유 두수나 자돈용사료의 출고량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돈업계에 이처럼 어려운 국면이 오래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생산자의 지나친 의욕이고 둘째는, 장기적인 확고한 정책 빈곤과 임기응변적인 가격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다.

80년 이후 총 사육 규모의 절대적인 숫적 증가에도 시세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것은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었지만, 수요의 증가율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결코 공급과 수요가 항상 맞먹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이래 그 어느 업종에서도 볼 수 없는 호황으로 치부한 자금이 규모 확대에 재투자되고, 이를 지켜보던 이들마저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현혹되어 업계로 뛰어든 분이 수없이 많았으니 돼지고기가 넘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 양돈인의 생산원가 절감에 절치부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평대로 정부가 생산 원가를 보상했다면 규모를 줄 일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 소요자금은 어디서 염출되며, 불황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인가?

돈버는 것도 좋지만 자제하고 준비하며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이 아쉽고, 지원과 동정을 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비책 강구 및 정책에 호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정부나 유관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입안과 실천, 그리고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한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감을 얻었어야 했고, 축산물과 안정책에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었던 것임에도 반영이 미온적이거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었으며, 생산자의 막연한 기대를 꺾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경우 5~10%만 증가해도 비상이 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도 많이 증가해야 20%미만에서도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우리나라에선 100~150%씩이나 늘고 주는 데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아직도 과도기적인 시련이 수없이 남아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소슬바람에도 휘청거리는 축산 업계를 바로 잡아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앞으로 가격은 어느정도 회복되긴 하겠지만 수요의 증가율은 둔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적자 생존의 철칙은 어김없는 것이다.

우리 양돈인은 자중하여 내실을 기하고 생산 원가 절감에 절치부심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버티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해야만겠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유통 개선, 포괄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육류 공급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때에 가장 좋은 돼지고기로 손님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